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념 특별전시 ‘영원, 낭만, 꽃’

### 11월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서 꽃 탐색... 대규모 전시 5개 테마 해남 대흥사 ‘십일면...’ 첫 공개 프랑스 전통가구·장식예술 박물관 ‘보밀리에 나시오날’ 작품 선봬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꽃 전시가 펼쳐진다. 전남도립미술관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전 ‘영원, 낭만, 꽃’을 기획, 20일부터 11월5일까지 전시를 연다. 전시에서 해남 대흥사 소장의 유형문화재가 최초로 공개되고 프랑스의 유명 박물관 ‘보밀리에 나시오날’의 협조를 받아 소장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전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했던 꽃의 도상을 탐색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총 5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1전시실은 ‘연화화생, 재생의 영원’라는 테마로 구성됐으며 연꽃을 통해 환생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사유하고자 한다. 특히 해남 대흥사 소장의 전남 유형문화재 제179호 ‘십일면전수관음보살도’와

‘준제관음보살도’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대흥사 성보박물관 개관 이후 처음 외부에 반출되는 작품들로, 시서화와 다도에 능했던 초의선사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의 대가로 알려진 소치 허련 역시 초의선사 문하에서 시서화를 배운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어, 전남 미술의 역사를 여는 작품이라 해도 무방하다. 또 서울역사박물관의 협조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4호 백자 등의 도자기가 함께 공개된다.

2전시실 ‘자유와 역동, 구체적 삶의 복귀’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태어나서 아기가 신는 타래버선과 꽃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의 귀주머니, 보자기와 모란도, 화조도 병풍 등의 민속품들을 국립민속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선보인다. 이외에도 평안과 복, 장수와 안녕을 기원했던 ‘길상문’에 그려진 꽃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3전시실 ‘시대를 넘어서’에서는 프랑스의 유명 박물관 ‘모빌리에 나시오날(Mobilier National)’의 소장품들이 대거 공개된다. 모빌리에 나시오날은 루이 14세 이후 재건된 가구 및 장식예술 박물관으로, 13만점의 컬렉션을 보유한 국립기관이다. 특히 루이 14세 시대의 궁정화



십일면전수관음보살도. 해남 대흥사 소장

관으로, 13만점의 컬렉션을 보유한 국립기관이다. 특히 루이 14세 시대의 궁정화

가인 샤를 르브룅(Charles Le Brun)의 원작 ‘사계’ 시리즈 중 ‘봄’이 공개된다. 르브룅은 1663년 고블랭 공방의 소장이 됐고, 1690년 사망할 때까지 고블랭 공방 전체를 관할했다.

이 작품은 실제 루이 14세 왕좌 뒤에 걸려있던 태피스트리(직물 형태의 벽 장식)로, 루이 14세 초기 고블랭 공방에서 만들어진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다. 이외에도 클로드 모네 원작의 ‘수련’ 작품 2점과 오딜롱 르동(Odilon Redon)의 원화-태피스트리 등이 공개된다. 전남도립미술관의 이견희 컬렉션 소장품인 천경자 화백의 ‘화혼’과 꽃의 화가 김홍주의 세필화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4전시실에서는 미디어 작가 제니퍼 스타인캠프(Jennifer Steinkamp)의 단채널 영상작품을 엿볼 수 있다. 4전시실 한 벽면을 가득 채워 일렁이는 모습을 띤 ‘미래로부터’ 작품은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가 특별히 2022년도 작품을 변형해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이 방에서는 3D 애니메이션과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된 자연물과 관람객이 교감하며 공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인 5 전시실 ‘삶의 확장, 가능성의 향배’에서는 동시대 미술 작가

들의 작업을 대규모로 선보인다. 특히 리움미술관의 협조를 받아 흑백사진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진작가인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의 꽃 시리즈와 더불어, 미국의 유명 팝 아티스트인 제임스 로젠퀼트(James Rosenquist)의 ‘무제(장미)’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강종열, 김종학, 한운성, 김상돈, 박기원, 송수민, 정희승 등의 작가들이 설치, 회화, 사진,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전시와 함께 세미나도 진행된다. 오는 21일 전남도립미술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아르노 드니(모빌리에 나시오날 컬렉션 담당)’가 발표를 진행한다. 세미나에서 루이 14세부터의 왕실 제작소에 관한 설명, 모빌리에 나시오날의 전반적인 컬렉션 설명과 직조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꽃의 도상이 가진 상징성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며 “예로부터 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꽃 이미지를 전남 문화재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다양하게 탐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녹음 우거진 초여름의 국악무대

남도국악원 ‘국악의 향연’ 24일 진악당 기악합주 등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일상설무대로 오는 24일 예정된 가무악 종합공연 ‘국악의 향연’에서 기악합주 ‘천년만세’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진도에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가무악 종합공연 ‘국악의 향연’을 오는 24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녹음이 진 초여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살면서 육심부리지 말고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며 살자는 내용의 단가 ‘벗님가’를 시작으로,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기악합주 ‘천년만세’가 이어진다.

세번째 무대는 어머니가 죽고 어린 심청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젖 동냥을 하는 심봉사의 이야기, 판소리 심청가 중 ‘동냥젖 얻어 먹이는 대목’과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연주곡 ‘집향무’에 맞춰 새롭게 안무를 짰 무용까지 선보인다.

이어 피리·대금중주 ‘길타령’, ‘별우조 타령’, ‘군악’, 경상도 민요 ‘상주아리랑’,

‘왜지나 칭칭나네’, ‘옹헤야’, 경상도 농악 중 무용농악 ‘복춤’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관계자는 “국립음악기관으로서 다양한 공연과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전라도의 흥과 신명을 느껴볼 수 있는 ‘국악의 향연’은 지난 5월에도 리적 접근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됐다”며 “완성도와 예술성 높은 공연 ‘국악의 향연’을 통해 초여름의 더위를 날려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문의. 도선인 기자

## “체코 예술가들이 연주하는 조국사랑”

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 예술가 스메타나·알폰스 주제로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의 네번째 무대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스메타나와 알폰스 무하, 나의 조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스메타나와 화가 알폰스 무하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연주한다.

체코의 음악가 스메타나와 화가 알폰스 무하는 1860~1870년대 오스트리아, 헝

가리 제국에 대해 체코의 민족부흥운동,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들의 예술적 활동을 통해 체코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공연은 △체코라는 나라 △패기 가득 찬 젊은 예술가들 △소망이 아닌 소명의 길로 △나의 조국 등 4개 순서로 진행되며 해설과 영상, 연주가 이어진다.

콘서트 가이드 김이근(유티클래식 대표)이 해설을 맡고, 솔리스 앙상블이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중 ‘코미디언의 춤’ 등을 연주한다. 또 피아노 김윤정, 바이올린 나은아·최은정, 비올라 공세정, 첼로 김인하가 참여한다.

이날 공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초정한 육군보병학교 장병들이 함께 관람한다.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관람의 일환이다.

11시 음악산책은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 올 댓 러브(All That Love)’를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예술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설, 영상, 연주 등 인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흥미로운 시간으로 안내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8세 이상 관람가이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전화예매는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 “치자향 가득한 숲길 걷는 투어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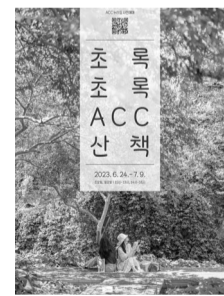
24일부터 ‘초록초록 ACC 산책’ 걸이화분 만들기 등 체험도 마련

전문 해설사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숲길을 산책하며 아시아 전통 매듭을 활용해 걸이화분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의 공간과 수목을 둘러보며 문화전당의 초여름 신록을 만끽하는 ‘초록초록 ACC 산책(사진)’ 투어 프로그램을 오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2회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ACC 열린마당 배롱나무숲과 문화정보원 앞 녹지섬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는 투어 해설사와 함께 공원으로 조성된 ACC 공간을 거닐며, 다양한 꽃과 식물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치자나무와 배롱나무, 꽃망울 등 문화전당의 여름철 꽃과 수목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내 방 안



초록초록 ACC 들이기’를 주제로 문화전당 내 식물을 친환경 화분에 심은 뒤 아시아 전통 매듭법을 활용해 걸이화분(행잉 플랜트)을 만드는 체험도 한다. 이번 야외 산책 투어와 체험 프로그램은 총 90분 정도 소요된다. ACC는 오는 15일부터 누리집(www.acc.go.kr)에서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1회당 참여인원은 20명으로, 8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5000원.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초록초록 ACC 산책’은 문화전당에 찾아온 여름을 시민과 함께 즐기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문화전당의 싱그러운 자연을 즐기고 아시아 전통문화도 체험해 보는 특별한 여름나기를 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원로예술인 건강검진 지원 전남문화재단, 1인 최대 30만원

전남문화재단은 지역에서 다양한 장르로 활동하고 있는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원로예술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또는 전남도가 지정한 명예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전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만70세 이상인 원로 및 명예예술인이며, 2023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한 진료비 내역서가 있어야 한다. 이후 11월 말까지 검진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www.jn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8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예술인 복지플렛(061-280-5826·5827·5836)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